

OG2 탐방객으로부터 본 오대산국립공원의 주차장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김진보*, 전창영, 박현태, 조태동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조경학과

1. 연구의 목적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그 효용성을 최대한 확보하며, 보전적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오대산 국립공원은 1972년 10 번째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오대산 국립공원은 접근성의 편리와 수려한 경관에 따라 탐방객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탐방객의 증가는 국립공원의 수용력 초과와 동시에 무분별한 이용에 따라 자연의 훼손 및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자연의 훼손 및 오염을 발생시키는 시설 중 하나가 주차장 시설 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 탐방객의 입장에서는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오대산 국립공원의 주차장은 부지의 부적절한 위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탐방로 훼손 및 보행자의 불편유발, 먼지발생 등 환경문제를 크게 발생 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대산 국립공원 주차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주차장의 이용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환경보전과 탐방객이 만족한 국립공원 이용이 되도록 주차장 시설의 개선방안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문헌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은 국립공원 관련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기타 국립공원 관련서적 및 간행물 등을 보충자료로 활용하였다.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입체적 연구를 시도하여 주차장 개선의 준거로 삼았다. 연구의 조사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5개소 주차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는 10월 18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대상지인 상원사, 동피골, 월정사, 소금강, 진고개 등의 5개소의 주차장중 월정사, 상원사, 소금강 주차장 등 3개소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지 5개소 주차장에 대한 현장조사

상원사 입구 주차장의 적정 수용력은 4,400㎡로서 대형차량 20대, 소형차량 71대를 주

차할 수 있고, 동피골 야영장 주차장은 4,800㎡로 대형차량 17대, 소형차량 87대를 주차할 수 있다. 또 월정사 주차장은 11,700㎡의 규모이며 대형 차량 166대, 소형차량 58대, 소금강 주차장의 면적은 17,650㎡로서 대형차량 424대, 소형차량 38대의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 평일에는 탐방객 방문이 적절하여 주차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지 않으나 주말, 연휴, 단풍철, 휴가철에는 탐방객의 집중 현상에 따라 주차장 규모가 매우 협소함이 파악되었다. 또 주차라인이 불명확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월정사 입구는 주차장으로의 진입은 용이하지만 주차장으로부터 도로진입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소금강 입구 주차장은 상점주들이 조성하여 탐방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곳 역시 차량에 비해 면적이 부족하고, 인도가 없어 보행자의 안전상 문제가 지적된다. 물론 관리공단에서 조성한 대형 주차장도 있지만 위치의 부적절함 때문에 이용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진고개 주차장은 7,590㎡로 대형차량 58대, 소형차량 108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현지 조사 시 이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주차장부터 주 이용대상지인 상원사 까지 약 15km를 도보로 걸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조사기간 중인 토·일요일은 매표소 입구 주차장을 제외한 4개소에서 평균 오전 9시경에 만차 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관리에 있어서도 주차장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보다는 직면한 문제 해결에 우선하는 모습이 보였다.

3.2 설문지를 통한 문항별 분석

총 70부의 설문지를 통해 오대산국립공원의 탐방객 방문횟수를 조사해본 결과 1~2회 방문이 89%로 가장 많았고, 3~4회방문은 11%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탐방객들이 단풍계절이나 휴가철에 한 두 차례 찾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국립공원을 찾아온 목적은 관광 54%, 등산·취미활동 33%, 사찰·문화재방문이 10%, 자연학습 3%순으로 나타났다. 약 80%가 관광, 등산 개인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사찰이나 문화재 방문을 위한 소수인원도 있었고, 어린 학생들과 동반한 가족단위의 자연학습을 위한 탐방객도 있었다. 한편 국립공원에 대하여 아직 관광대상지라는 인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자연학습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국립공원을 찾아오는데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62%, 관광버스 28%, 노선버스 10%로 나타났는데 승용차가 대다수를 이루고 단체탐방객들은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주차장 이용 후 만족도는 불만족하다는 답변이 62%, 보통 35%, 만족 3%순으로 나타나서 90%에 가까운 탐방객들이 주차장 이용측면에 불편함을 느꼈고, 그 중 60%로가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변 하였다. 주차장 이용에서 불편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는냐는 질문에는 주차장 공간협소, 관리소홀, 입·출구의 위치 부적절, 장애인을 위한 공간부족, 주차이용요금의 불만족 등의 답변이 있었다. 대부분의 탐방객이 중복으로 응답 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공간 면적에 대한 질문에는 좁다 93%, 보통이다 6%, 넓다 1%의 답변이 있었다. 앞서서도 기술하였지만 주차장 면적 부족을 지적하는 항목으로써 그 문제점을 알 수 있다. 현 주차문제의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부지확장, 탐방예약제 실시, 순환셔틀버스 운행, 다른 지역의 주차장 조성 등의 의견을 보였다. 탐방객들의 세부의견을 들을 수 있는 문항으로써 이 또한 대부분의 탐방객이 중복으로 답변을 했다. 먼저 부지확장이 제일 우선이었고 수용적정인원제한 그리고 일부의 사람은 순환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의견 순으로 적극 추천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차요금의 적정선은 현행의 4,000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2%, 3,000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24%, 5,000원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8%, 2,000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6%로 나타났다. 일년에 한두 번 오는 탐방객들이 하루 주차요금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을 피력한 일부 탐방객들도 있었다.

4. 결 론

국립공원이 탐방객의 적정수용력 초과로 인해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국립공원에 대한 환경적 부하를 줄이고 공원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만족한 체험을 증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대산 국립공원의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용력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 시설로 인해 탐방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의 경관을 훼손 하고 있다.
2. 국립공원 탐방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미비하다.
3. 주차장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차량 탐방객과 도보 탐방객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오대산 국립공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사전 예약제(탐방예약제)실시 : 적정수용력을 산정하여 탐방객의 방문을 제한 한다면 주차장 문제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관도 보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용 셔틀버스의 운영 : 근접한 도시에서 오대산까지 버스를 운영하거나 국립공원 초입의 주차장에서 국립공원 내 구간을 셔틀버스로 운행하면 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의 재원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매표소 입구에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주차장을 대형화시켜 오대산 진입부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더불어 질 높은 가로환경과 도보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탐방객의 환경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라 할 수 있다.

인용 및 참고문헌

윤주, 2000, 우리나라 국립공원 탐방객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5~34

환경부, 2000, 국립공원백서, pp.5~130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a.or.kr)

국립공원관리공단, 1995, 한국의 국립공원, pp.103~105

오구균, 1996, 오대산 국립공원의 탐방객 행태, 환경생태학회, pp.44~51